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18 회 , 구원, 영생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구원, 영생입니다.

우리는 요한 신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구원을 영생으로 봅니다. 이는  
4복음서의 많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영생은 서론에서 소개됩니다. 맞으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존은 삶과 빛의 주제를 엮어냅니다. 다시 한번, 저는 Andreas Kostenberge  
r의 *요한 복음과 서신의 신학* , 제 생각에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얽힘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그것들을 분리했고,  
지금은 영생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빛으로 논의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에서, 말씀에서, 생명이 있었습니다. 4복음서에서 조에 ,  
그리스어 조에 , 생명이 사용될 때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 자리는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3절에서 말했듯이, 그는 창조된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을 주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고, 이것은 긍정적인 것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진술입니다. 그가 없다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는 로고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모든 창조된 생명의 근원, 3절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비추는 신의 계시였습니다. Of men은 목적적 소유격입니다. Light는 행동 명사입니다.

빛은 방사하여 인간을 비추고 비춥니다. 즉, 말씀은 일반 계시의 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그분을 창조주로 증거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들은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 4에서 가르쳐졌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에도 가르쳐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었습니다 .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근원은 영원합니다.

모든 창조된 생명의 근원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의 영원한 생명.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아들, 빛, 말씀. 그래서 물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원적으로, 그는 죄인들을 비추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렸듯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에 다루었습니다.

민수기 21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같이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시대착오적이고 고풍스럽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어둠 속에서, 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적으로 그들을 비추실 때, 어둠은 빛으로 대체됩니다. 무지는 지식이 됩니다. 죄는 거룩함이 됩니다.

아들 을 믿는 것은 영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여기서 영생은 멸망의 반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파괴의 언어, 어휘입니다.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말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영광과 기쁨으로부터 멀어진 영원한 의식적 처벌입니다.

이제 분명히 해두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영생은 생명 주시는 자에 의해 선물로 주어지느니라.

모든 것에 생명, 육체적 생명을 준 성육신된 말씀. 성육신 이전에도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요한복음 1:3, 4. 지금 그는 성육신 하셨고 ,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맨 마지막 두 구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을 얻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현재 소유물입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실현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미 차원의 삶과 죽음. 그것은 죽음을 사용하지 않고 분노를 사용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울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아들은 주님입니다.

요한도 사용하지만 바울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7:1과 2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35 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의 보편적 주권에서 선택으로 가는 17:1과 2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아들의 보편적 주권은 믿음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긴장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나은 단어가 없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충만하게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존의 악센트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찾으려면, 아,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0번 중 9번은 영원한 삶입니다. 가장 자주 영원한 삶이라고 불리고, 때로는 생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현실을 언급합니다. 비록 형용사 영원이 더 널리 쓰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둘 다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아들 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은 믿음과 평행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복음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삶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삶은, 요한복음 17:3, 아버지 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안에 갖는 것입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지옥과 관련된 미래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네 번째 복음은 종말론입니다. 그 중 일부는 소위 일관된 종말론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부활한 의로운 자들에게는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불, 지옥, 불못, 두 번째 죽음, 게헨나로 던져집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미 정죄받았다고 가르칩니다(요한복음 3:18). 그리고 이 장의 후반부에서 큰 대조가 주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은 지금 과 영원토록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인들에게 다가올 진노에 대해 지금 경고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가올 진노가 이미 왔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물론 더 큰 영원한 진노의 전조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가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그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카칸 겔리온

은 인식론적으로 말해서 euangelion , 좋은 메시지, 좋은 소식을 이해하기 위한 서곡입니다 .

우리는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 3장과 4장 사이의 큰 아이러니를 놓치지 마세요. 3장, 유대인이란 누구나 예상할 것입니다. 니고데모, 농담이에요? 유대인 남자, 바리새인, 산헤드린 의원,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사.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아니요? 아, 그럼 그는 바로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ABC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가 새로운 탄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오 세상에. 만약 불쌍히 여겨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공평하거나 선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 생활에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농담이에요? 제자들은 랍비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은커녕, 대중 앞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의 배경을 알았다면, 그들은 들고 있던 음식을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성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눈에 멸시받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남편. 당신은 18년 동안 다섯 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당신이 가진 사람은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배 장소에서 신학적 질문으로 재빨리 옮겨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정직했어요.

와. 그녀는 여섯 번째 남자를 위해 일하고 있군요. 이건 1세기에 유행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살든 말이죠.

오, 세상에.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인가. 위대한 바리새인, 산헤드린 회원, 교사, 그리고 이스라엘인.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는 법을 아십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했듯이 겸손한 자를 높이는 법을 아십니다. 마리아가 그녀의 찬가에서 말했듯이.

그는 어떻게 아는가? 야고보와 베드로 전서 모두. 하느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반대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구약성서의 생각이다.

내 머릿속에는 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의 기독교인인 야고보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가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4:5, 연장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너희는 다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구약성경에 선행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빨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가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경청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표현이라면 그에게 공을 돌리세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7장에서 예수를 변호했고 19장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시신을 돌보는 데 시간과 돈을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더 겸손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녀는 결국 여성 전도사로 여겨지고, 도시의 남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가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해 준 남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 덕분에 그들은 “이제 이 남자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진보적이어서 이스라엘이나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신은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 맥락에서, 우리는 14절을 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실 것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것을 청하는 건 어째서인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 410, 그리고 당신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중 의미, 흐르는 물. 아, 좋은 생각이네.

이건 귀찮은 일이에요. 더 이상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이거 주세요, 선생님.

매우 편리할 겁니다. 우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양동기도 없는데. 이해가 안 가요.

양동이 없이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겠어요? 요한이 매우 강력하게 사용한 상징주의를 기억하세요. 빵, 물, 빛.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세요, 15절.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여기 오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는 남편 거래를 합니다. 그녀는 인정하고, 그리심 산이 당신이 경배해야 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틀렸어요. 구원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저는 이미 그것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오, 세상에.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4:14입니다.

누구든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리라. 물론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줄 영적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에게서 물샘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은유적이고 영적인 물샘이다.

전에 말했잖아, 내가 알기는 어려워. 성령과 영생이 둘 다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해. 물이 영생 그 자체인가? 물이 영생을 낳는 성령인가? 나는 2번 문에 투표할 거야, 하지만 잘 모르겠어.

중요한 것은, 영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영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삶의 수여자입니다.

믿고 마음을 여는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여인에게도 . 5:21.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준다.

아들이 생명을 주는 자라는 직접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신성한 일이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것은

재생인가 부활인가? 저는 직접적인 맥락에서 재생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오, 맏소사. 이권 선거가 아니야.

이것은 아들에 의한 거둢남입니다. 아들은 지금 그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아들의 주권입니다.

아들 을 믿습니다 .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죽은 자에게 주권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분명합니다. 521에서 아들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에서 그것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자이시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라 . 예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 그것은 환유입니다. 그의 말은 영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유는 두 가지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신문이나 메시지를 읽었다면, 백악관에서 오늘 메시지가 나왔다고 말할 겁니다. 집에서 나온 메시지라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집 페인팅? 아니, 아, 사무실에서 나온 거구나 하고 말할 겁니다. 미국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이해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의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자의 생명을 주는 말씀은 거둬나지 아니한 인간을 거둬나게 하느니라.

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한 시간이 오고 지금 여기 있다. 그것이 이미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이다.

그래서 그는 또한 아들에게 자신 안에서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DA 카슨과 의견이 다릅니다.

그는 확실히 그의 글에서 나의 스승입니다. 그는 이것이 아들의 영원한 세대에 대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이 항상 아들의 아버지였고 아들이 항상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개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성육신 이전의 삼위일체 간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육신한 사업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아들에게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영원한 아들의 육신.

그래서 이 사람, 예수는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영적 부활에 놀라지 마십시오. 문자 그대로의 육체적 부활이 있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인자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온 무리가 와서 그를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묘지 전체를 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

그는 당신이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거듭납니다.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필멸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그의 음성에 따라 죽은 자들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모두 일으키실 때,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17장,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서문을 사용하고 거기서부터 주제를 추적하면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 과정을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과 그 이전의 주제와 그로부터 나오는 주제를 사용하면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 과정을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 2절과 3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며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영광, 그리고 물론 영의 영광, 비록 그가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당신이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 잠깐만요.

그들이 택함받았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저 그것을 위해 택함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아들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는 영생을 주십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사실입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는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 아는 지식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다룰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그것을 아주 잘 다루었다고 믿습니다.

휴. 첫 몇 구절에 놀라운 주제가 얹혀 있고,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말? 네. 포괄적으로? 아니요, 너무 큼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개념이 너무 큼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구절은 컬트를 위한 구절이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들의 것이 그를 참 하나님과 구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별한다고 하지만, 이 구절을 좀 들어보세요.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은 따라서 아버지 와 동등합니다 . 참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말했듯이 첫 번째 인격으로서 탁월함을 주십니다. 결국 영은 육신이 되지 않았고, 아들만 육신이 되었고, 아버지는 육신이 되지 않았고, 아들만 육신이 되었고, 육신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또는 기능적 종속이 있습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즉, 영생은 관계적입니다.

즉, 그것은 양적인 것만은 아니다. 영원한 죽음도 양적이다. 인간은 영원히 지속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질적입니다. 영원한 삶은 관계적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관계가 있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은 종교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 거짓 종교로 사용합니다.

그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참되고 참된 종교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는 이것이다. 과부와 고아를 그들의 고난 중에 돌보고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 종교가 있다.

종교적 의식과 기도, 일어서고 앉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만찬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종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이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기독교 가르침과 관련된 신학과 기독교 실천과 관련된 종교를 구별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두에 스며드는 것은 성부, 성자, 그리고 물론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목적 진술로 마무리합니다.

요한의 계산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세 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세 번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세 번을 세었고, 그가 세 번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만 나타났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적 진술은 도마의 출현, 의심하는 도마를 따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 요한 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은 과장된 표현이다.

과장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을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과장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과장입니다. 잠깐만요. 아들이 영원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가 영원 과거에 행한 일 을 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영원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한 아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징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네,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지만, 한정된 수입입니다. 요한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20:30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7:8이나 9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  
코스텐버거를 읽으면서 부활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가리키는  
본질이 아니라 다른 표적들이 가리키는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2장입니다. 성전을 정화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표적을 행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즉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고, 제가 이전에 그것을 가르쳤을 때 확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텐버거가  
이 모든 거인들이 부활이 표적들이 가리키는 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표지판이란 무엇인가?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아프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이 옳다고 60% 믿고, 2장에서 표지판에 대한 표지판 요청을 삼킬  
것이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역사가입니다.

요한은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보다, 베드로, 마태, 누가보다 예수가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강에 비유될 수 있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이 강에서 놀면서 많은 좋은 것을 얻고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 코끼리는 이 강에서 수영할 수 있고 익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표징들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기적들은 여러 번  
쓰여지고 선택되었으며 설교와 결합되었습니다. 저는 존이 무언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창의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 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깊이 생각한다. 그는 시간이 넉넉하다  
. 그는 그들이 여러 번 언급하지도 않은 것을 모은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부음받은 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약속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신성한 인간 통치자,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큰 포함이 있고, 큰 포함이 언어의 동일한 특징을 책갈피로 묶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과 20:30에서 같은 단어인 생명이 1. 기억하세요, 장 구분은 영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구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아들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고, 아들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미와 아직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구원, 영생입니다.